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6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한국현대생활사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글판, 건강한 인생 바디로직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좀바라TV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미공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존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킹닭갈비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대리운전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카페 그리고 월7천원업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미술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내일

촛불을 켜시다
 특별한 날이거든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1222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

**추모콘서트 16시
사전행사 17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
본립일 17시 반
행진 18시**

1월 7일 광화문광장

bisang2016.net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

사전대회

(1월 6일 오전 11시 현재)

**송박영신! 국민토끼!
'바꾸자 3개를 말해봐!'**
 오후 1시~9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주최: 박근혜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 시민참여특별위원회

길거리 붓글쓰기(서예/캘리그래피)
 낮 12시30분~19시
 광화문 캠핑촌
 주최: 광화문 캠핑촌 (서예가 이상필 / 캘리그래피 이석민(KBS 타이틀 디자이너) / 더불어 숲 등)

즉각퇴진 깃발 퍼포먼스
 오후 2시
 광화문 캠핑촌
 주최: 양혜경 등 / 광화문 캠핑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연서 보내기
 오후 2시
 광화문부단 광장
 주최: 환경운동연합

차별공약 미술 PROJECT
 오후 2시
 세종대왕상 뒷면, 차벽 앞
 주최: 광화문미술행동 / 리얼리스트 100 등

시국 퍼포먼스 였6 <눈떠>
 오후 3시
 광화문캠핑촌 → 헌법재판소 → 청와대
 주최: 주류 아닌 예술가

박근혜 즉각 퇴진, 청와대공작정치 규탄 캠페인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앞
 주최: 민중연합당

진실을 밝히는 1,000개의 종이배
 오후 5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차벽
 주최: 노동당

시민나팔부대 집결 안내
 오후 3시 1차 집결, 이순신동상 뒤편
 오후 6시 2차 집결, 광화문광장 북단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최순실의 아바타, 박근혜

東亞日報 정호성 휴대전화 녹취파일 공개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 사람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순실과의 통화 파일을 확인했다. 통화 파일에서 최순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행세를 했다. 또한 대통령 박근혜의 공식 일정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도 지정해주고, 청와대 회의를 열 어라, 이렇게 회의 소집도 지시했다. 한편 “여기 언제까지 올릴 수 있나?”라며 최순실은 독일로 추정되는 해외에서도 국정을 농단한 뚜렷한 정황이 나온다.

東亞日報 최 “장관 선임하면 한마디 해야지”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파일에는 대통령 박근혜와의 통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는 “그, 그 무기 부실, 하긴 뭐, 하여튼 저기 큰, 하여튼 특히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이라며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했다. 박근혜의 모호한 화법은 문고리 3인방과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최순실은 정호성 당시 비서관에게 “복지부 장관 새로 선임됐으니 당부의 말씀을 하고는 가셔야지.”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해외 순방이 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지시였고 실제 2013년 11월 서유럽 순방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늘러 다녔다는 거구나.

‘박근혜 사단’의 도덕성

국민일보 “휴대폰,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종범.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파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종범 자택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방안’ 문건을 검찰이 압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문건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 **최고의 병기!**
조합비 납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coop.KUKMIN.tv

경향신문 안봉근의 뻔뻔한 거짓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검찰 조사 당시 최순실을 정윤희의 부인으로만 알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순실의 ‘수족’ 역할을 해온 청와대 제2부속실의 최고책임자였다. 또한 대통령 접견인사 가운데 출입증을 달지 않는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총괄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은 관저에 온 적이 없으며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에 몇 번 출입했었다고 증언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셈이다. 가증스럽다 못해 이젠 연민의 정까지 든다.

朝鮮日報도 포기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특별검사 수사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을 두 차례 제지했다. 윤석열이 노무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기막힌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무현이 아끼는 사람 두 명의 구속영장을 쓴 인물이다. 서석구, 낯고 녹슨 칼을 휘두르는데 그게 무엇을 찌를 수 있겠나 싶다. 조선일보 1면 보도, 박근혜가 법 보다는 정치를 택했다는 제목이다.

부역자 또는 주범

국민일보 김기춘, 국정원 인사 개입

2014년 7월에서 8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 추모 국장의 1급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추 국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 라인’의 힘을 업고 2년5개월 동안 국정원을 장악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재직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최순실 관련 정보 등을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우병우→김기춘’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내 ‘최순실 커넥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예 범죄의 온상 국정원을 없애거나.

중일일보 “블랙리스트에 김기춘·조운선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사실과 작성·관리자를 특검팀이 공식 확인해 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수사가 진척됐다는 의미다. 또한 “대통령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중”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시작은 이화여대였지

중일일보 최경희, 최순실과 수십 차례 통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이 통화한 기록이 잔뜩 나왔다고 말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에서 학점 잘 받고, 출석하는 것처럼 챙겨주도록 최순실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수십 차례 통화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최경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위증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東亞日報 정유라의 근황

동아일보가 정유라의 덴마크 구치소 생활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정유라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에 두 차례 피자 주문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구치소보다 자유가 허용되는 환경이지만 다른 생활 규칙은 엄격하다. 본인이 직접 자기 방을 매일 아침 청소해야 하며, 독방에 머물면서 교도관의 허락이 있어야만 샤워를 할 수 있다.

‘AI 살처분’ 3000만

서울신문 ‘AI 보상금’ 80%, 대기업이 챙겨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산할 때마다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가축 실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땀질 처방’이 거대 양계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상금의 80%를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AI로 경영난에 처한 개인 농가를 흡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계업이 기업화되고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는 농가가 증가한다. AI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좋은 기사, 서울신문에 실렸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반기문”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이용인 워싱턴 특파원이 쓴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반기문”이다. 지난 8월 4일자 한겨레에는 한겨레 전·현직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한 내용이 실렸다. 5대 1. 힐러리 5, 트럼프 1. 이용인 특파원은 트럼프에 걸었던 한 사람이다. 이용인 기자 칼럼이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걸로 갈 용의가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져야 할 “불사르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던 것은, 그의 메시지 전달 능력 부족 때문은 아닐 것이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연설 기술’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유세 현장은 늘 열기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노동계층과 소득불평등 해소, 환경 보호를 위해 ‘불살라’ 그의 삶 자체가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을·읽·는·책 살아있는 시, 문학적인 운동...시인 고정희를 만나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한 밀천이 흔들리고 두 기둥이 흔들리고
수월수월 수월수월 네 벽이 흔들리고 수유리가 흔들리고 도봉구가 흔들리고
인수봉이 흔들리고 서울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한반도가 흔들릴 때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덩이가 흔들릴 때 (시 『수유리의 바람』)

안타깝게도 반 전 총장이 외교관으로서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도 몸을 던져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티 콜레라 사태였다. 2010년 대지진 지원을 위해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이 콜레라를 전염시켜 최소한 1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만명이 질병을 앓았다. (<뉴욕 타임스>) 아이티는 그동안 콜레라가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콜레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인근 도미니카공화국까지 확산됐다. 반기문 전 총장은 사과를 6년 뒤에 했다.

발병 이듬해인 2011년 유엔 전문가 패널들은 역학조사를 통해 네팔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질병의 진원지임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이 유엔에 보상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유엔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유엔 내부 조사기구나 인권 담당자들도 유엔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하지만 '반기문의 유엔'은 인도주의 지원 대신에, 평화유지군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법의 뒤로 숨었다. 반전 총장이 직접 뒤늦게 사과를 한 것은 사무총장 임기 종료 한달을 남겨둔 지난달 1일이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악재'가 될 만한 것을 털기 위해 막판에 사과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힘없고 가난하며, 유엔 상대 소송에서도 패한 아이티의 콜레라 피해자들이 6년 동안 '가만있어야'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사건도 아니었는데, 그가 왜 유엔의 대의를 위해 소매 걷고 나서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여기서 대략 반기문의 견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가 반기문 정권에서 나도 별 다르지 않을 대한민국이다.

광화문 매일초분
2시2분

세월호참사 1000일
세월호 투쟁의
새로운 시작

1월 6일 (금) 오후7시 광화문광장

- 사회 정진우 세월호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 주도혐의로 구속
- 초청 발언 용혜인 '가만히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세월호 유가족
- 공연 이혜규
- 시민자유발언
- 집회 이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

주관 @ 노동당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